불교인문학살롱

④ 인왕호국반야경과 호국불교

▶**김태진 문학평론가**는 동아대 법학박사로 동 법무대학원 교수, 연세대 연구위원, 한국헌법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논, 아득한 성자〉, 〈인왕반야경〉,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헌법스케치〉 등의 저서가 있다. 한국문인협회 수필가, 한국불교문학 편집위원, (사) 만해사상 실천연합 상임감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장, 글로벌 문학상 심사위원장 · 문화예술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부처님이 설한 현명한 군주 리더십

2600여 년 전, 언젠가 새해 정초에 인도 16개국의 왕들이 모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에 대해 붓다 세존께 지혜를 구하게 된다. 그 중 코살라국 바사익 왕이 대표로 붓다께 여쭈었다.

"붓다 세존이시여, 전쟁과 같은 일곱 가지 천지 재앙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왕들이여!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출가사문과 여러 종교 성직자들과 국왕과 고위관리들이 바른 법을 행하지 않는 까닭이니. 이 모든 나쁜 습관으로부터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과거 전생에 복을 지어 제왕 등이 되었건만, 만약 왕과 그의 신하들이 복을 다 소진해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성현들이 무관심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재난과 혼란들이 마구 생겨나 어지러워 질 것이다."



경주 황룡사지 탑신 유구.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다. 경주 황룡사는 신라의 호국사찰로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불교관이 담겼다.

이토록 재앙이 종횡으로 일어날 때, 그 때 세상이 텅 비게 될 때 호국 · 호법 · 호민을 위해 〈인왕호국반야경〉에 의지해야 함을 목숨처럼 일러주고 계시다.

필자가 대표적 호국경전인 이 '인왕경'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부 불교학생회 시절, 은사 광덕스님께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는 팔관회, 백고좌 인왕법회를 열었다"는 법문에서 비롯된다. 그 인연은 공직에 입문하여, 도문 스님이 일제강점기 3 · 1독립선언 33인 용성스님이 번역하신 조선어 경전중 '호국호법삼부경'을 1987년 9월에 간행하신 덕에 〈인왕경〉을 다시금 만나게 되면서 이어진다. 하지만 이 '호국삼부경'에는 용성 스님의 유훈에 따라 〈법화경〉과 금광명경 외에 인왕경은 번역되지 않은 채 한문 원문만 수록되어 있어 한글화의 원력을 내었다.

지난 공무원불자회장 시절인 2007년 6월 '제1회 호국영령 순직직원 천도법회'를 현재까지 열여섯 차례 봉행해 오고 있다. 그 무렵 이를 '호국법회'로 명명하고 나니 불교신행 공직자의 본분과 정체성을 경전에 근거해야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필자는 공직 퇴임을 앞두고 '진리의 사회화' 일환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 된 한글 〈인왕반야경〉을 '현명한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완성'이란 부제를 달아 몇 해 전 세상에 처음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인왕경(仁王經)〉은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의 약칭으로 한역본으로는 4종류의 역본이 있었다. 서기 401년 구역으로 불리는 진나라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의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이 있고 이보다 364년 뒤인 서기 765년 새로 번역된 신역인 당나라 불공(不空, Amoghavajra)의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등 2개의 대장경 판본만 현존할 뿐이다. 필자로선 비교적 두 경전의 요체는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이를 혼용해 번역하게 됐다. 구역과 마찬가지로 불공의 신역 또한 상하 2권으로 분류하여 상권은 1.서품 2.관공품 3.보살교화품 4.이제품으로, 하권은 5.호국품 6.산화품, 7.수지품, 8.촉루품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맞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권을 요약해 보면 주로 붓다께서 증득하신 진리를 시설하셨는데, 현재 우리 몸은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요, 실제처럼 보이나 지혜로 관조하면 육신이 바로 허상이란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무아이므로, 이를 직관한다면 중생으로 겪어온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 걸림이 없는 지혜의 완성인 반야바라밀을 성취함을 일러주어, 인왕법회에 동참한 모두가 위없는 진리의 구현자로서 반야지혜를 이루도록 하였다. 호국을 위해 먼저 불법을 내적으로 수호하는 호법의 화신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하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이같은 궁극적 진리를 세상의 진리와 계합, 이를 화현하여 나라를 수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14가지 방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붓다께서 '완전한 지혜의 서'를 왕들에게 위촉하고 간절히 당부하여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거룩한 회향을 하고 있다. 즉 호법(護法)이 바로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과 둘이 아님을 밝혀 믿음이 있는 군주를 현명한 대승보살로 부촉하여 그로 하여금 불교, 진리를 외호토록 한 것이다.

원전(原典)이 발견되지 않아 학자들은 성립 시기는 한역을 기준으로 "대략 3~4세기경으로 보인다"며 인도 기원보다는 중앙아시아나 중국 기원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왕경(仁王經)〉은 대장경에 편입돼 동아시아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떠받던 경전이었으며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호법이 곧 호국'임을 설한 〈인왕경〉
상·하권, 8품으로 구성된 대승경전
〈인왕경〉 근거 '인왕백고좌법회' 봉행
"국민을 불보살과 같이 받들어 모셔라"
부처님, 정치지도자에 대한 덕목 강조

신라의 '인왕백고좌법회(仁王百高坐法會)'는 바로 이 경전에 근거하여 시설해 온 것이다.

특히 신라는 인왕법회를 위해 진흥왕 27년(서기 566)에 호국사찰 황룡사를 창건하고 574년에는 5m가 넘는 삼존불상을 조성, 진평왕 6년(서기 584)에 금당을 지어 안치하게 된다. 선덕여왕 12년(서기 643)에는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자장(慈藏)율사의 권유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황룡사 9층 목탑을 645년에 완공한다. 황룡사는 93년간 호국일념의 국가사업으로 조성하였다. 비록 불타 없어져 안타깝지만 '신라의 땅이 곧 부처가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 특유의 불교관이 깃든 유서 깊은 곳이다.

〈삼국유사〉에 신라와 고려는 국가적 위기를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백일동안 '반야바라밀다'를 암송하며 백 위의 불보살상과 등(燈), 향, 그리고 꽃으로 장엄하여 100명의 법사를 법회 높은 자리에 모셨다. 후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니 오늘날 2국 체제인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왕법회 장엄도량에 100명의 법사를 높은 사자좌에 모시고 국왕과 문무백관들은 하단에서 법회를 청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국난극복의 총화요, 국론통일의 구심점이 아닐 수 없다. 매일 같이 삼국이 서로 전쟁을 치르니 오늘은 지아비가 죽고 내일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 속에 임금인들 더 이상 민초들의 눈물과 피, 거룩한 희생을 강요하기 쉽지 않았을 터 아닌가. 호국이 총칼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반야지혜에서 비롯되는가? 고승들의 법문 한 가지씩 백일 동안 새기고 또 새기니 마침내 호법으로 하나 되어 갔으리라.

나라위해 희생하신 무지렁이 백성들을 호국영령으로 추모하고 불법의 위신력으로 승화하니 어버이로 군림하던 왕은 어진 임금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생사를 넘어 진리를 향한 도반이 되고 마침내 관민이 하나 되어 국난극복의 원력을 성취한 것이다. 통일국가인 신라와 고려의 원천이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 것임은 〈인왕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난에 처하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반야지혜를 통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곧 호국의 길임을 보여준다. 〈인왕경(仁王經)〉은 물론 대다수 대승경전 또한 반야바라밀다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요 모든 보살의 어머니"로서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을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내세운다. 이는 나라에 정법구현, 파사현정이란 완전한 지혜의 길이야말로 바로 호국의 길에 다름 아님을 일러주는 것이리라.

일평생 공직을 수행해온 필자가 나라와 국민사랑이 호국이란 소신을 지켜 온데에는 어머니와 함께한 작은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평소 어머니는 "품어주고 길러준 은혜 없지 않겠으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 한없으니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명심하라"고 늘 말씀하셨다. 국무를 담당하던 필자에게 이 말씀은 전범과도 같은 것이었다. 오늘따라 큰 울림이 되어 마음을 때린다. "아무리 이 애미가 전쟁터에서 포탄을 피해 너를 안아 주어도 안전을 약속할 수 없다. 그것은 나라가 보호해 주는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소소한 행복 그 자체이다. 이같이 행복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나라와 사회에 환난이나 재난,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어머니가 소원하신 안전한 나라, 그 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행복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정녕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호국이야말로 우리들의 행복이자 진정한 복지이며, 우리의 현존 그 처음과 끝이 아닐 수 없다. 오래된 현재진행형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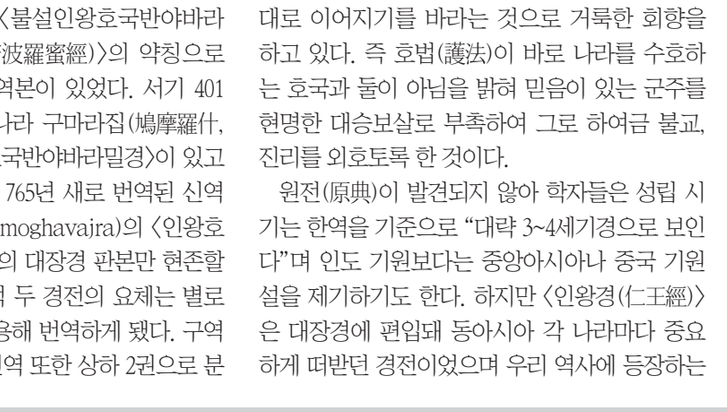
붓다께서 16명의 국왕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전국토가 적들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어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극에 달할 때에는 국왕과 왕자와 모든 고위관리들이 오직 자신의 권력과 위력만 믿고 종교지도자들 또한 바른 법을 쇠퇴시켜 국민의 바른 행동이 없어 탐욕과 투쟁이 난무하여 붓다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질 때이다."

"무릇 임금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지 말며, 불보살과 같이 받들어 모시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행하라."

이제 눈 밝은 국민들은 누가 국민의 뜻, 법과 원칙에 따라 행업을 실천 또는 감당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올 이 시대의 지도자인지, '현명한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지혜의 완성'인 〈인왕반야경〉을 가늠자로, 언제 올지 모르는 천지재앙을 극복하는 원력과 그 의지처가 되길 소원한다.

이야말로 1600여 년 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호국의 화신이던 〈인왕반야경〉을 먼지 쌓인 장경각에서 이끌어내어 이 시대의 살아있는 찬란한 말씀으로 되살린 이유이자 국민통합과 국난극복의 간곡함 아니겠는가. 이제 〈인왕경〉 화신이 되어 그 진면목을 목격하는 순간 불가사의한 인연법과 만나고, 삼계화택의 불구덩이 같았던 내 마음에는 꽃비가 내리고, 상서로운 기운과 맑은 향기가 가득하다. 오! 〈인왕반야경〉이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9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3월 6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6개월 과정
● 매주 월/화요일 2시~5시(3시간) ● 실관/통변중심 강의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전과목 동영상무료시청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과목 월 30만원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